



스기모토 하지메 씨

1961년 1월 18일생
 미나마타병 환자가족. 어머니 스기모토 에이코씨 (2008년사망)
 가족들이 미나마타병에 걸렸던 일들, 어렸을 적의 생활, 도시로 나갔다가 다시 미나마타로 되돌아온 일, 자신의 신체상황 등에 대해 이야기함.
 무침가 멸치 등 어업을 경영.
 2008년 5월부터 미나마타병자료관의 증언인으로 됨.
 미나마타시 후쿠로 재주.

우리집은 대대로 선주였으며, 많은 어부들이 우리집에서 일했습니다. 어느날, 할머니가 갑자기 손을 떨기 시작해서 병원에 데리고 갔지만, 원인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격리 병동에 입원하였습니다.

퇴원 후, 마을사람들로부터 전염병, 기병에 걸렸다고 차별과 따돌림을 당하기 시작했고 집에는 아무도 오지않게 되었습니다. 그 후, 할아버지는 극증(劇症)형 미나마타병으로 사망되고, 양친도 발병하여,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는 집에 어른이 없는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5남매중 장남입니다. 양친이 구급차에 실려서 병원에 입원할 때, 누구에게도 의논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동생들을 어떻게 키우지... 이런 생각만 매일 해왔습니다. 5형제가 찍은 한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사진속에는 야위고 불안해 하는 애들이있었습니다. 양친은 퇴원해서 집에 왔어도 누운 채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동생들은 기뻐하면서 어머니의 간병을 했습니다.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부모라는 존재가 대단한 거구나 그때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양친은 상태가 좋아지면 고기잡으러 나갔고 저도 소학교 4학년 때부터 어업을 도왔습니다. 새벽 4시반에 일어나서 고기잡으로 갔다가 다시 학교로 가곤 했습니다. 학교에가서 따돌림을 당할까봐 가족들중 미나마타병환자가 있다는 일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해자,그 가족들이 한 지역,한 교실에 있었기 때문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10년에 겨우 미나마타병에 관해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이해를 받기 위하여 어머니가 증언인으로 되어, 미나마타병은 "제 멋대로 행동하는 것이라고" 자신의 체험담들을 이야기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가져가 주었습니다.

사회에는 많은 차별과 편견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되었다면 가해자가 된 입장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생활해 나가세요. 사람은 꼭 자신에게 맞는 역할이 있습니다. 어떤 슬픈일이 있더라도 절대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마세요.